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 4/2(금) 요한복음 5 18-21장

1-9장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1-5장 Come and See

6-9장 너희도 가려느냐

10-17장 그리스도인의 언약

10-13장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4-17장 그리하면 이루리라

18-21장 그리스도인의 사명

▶ 18-21장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Before 출치며 읽기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를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After 묵상하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받았습니까?

“내가 그니라(18:5, 6, 8).”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잔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습니다(18:31).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했던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끝에 납이나 날카로운 못이 달려 있어,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가고 찢어져, 피가 튀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골고다)로 가십니다.

죄인들 한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그저’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참고도서

HOW주석

IVP성경배경주석

LAB주석

WBC주석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청교도 성경주석

통성경 길라잡이

하루만에 꿰뚫는 성경관통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broken bread and poured-out wine)가
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19:30).”

온전히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입구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합니다.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 눈물만 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20:15).”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가르쳐주셨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 언약을 혹시 잊고 살진 않으십니까?

요 20:20–21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처음,

‘평강(εἰρήνη, 에이레네)’을 말씀하셨습니다(20:19, 21, 26).

‘에이레네(샬롬)’는 사람을 만났을 때, 헤어질 때, 또는 이웃을 방문할 때 등의 상황에서 다양하게 사용된 인사말입니다(왕하 5:21, 삼상 1:17, 마 10:12).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인사말을 건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화평)을 주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이 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음에도 그들을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롬 5:1).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습니다(20:31).

우리는 ‘복음에 빛진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죄 사함의 권세도 주십니다.

‘나’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를 파송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똑똑’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하십니다(계 3:20).